

아드보 '가장 친절·배려해 주는' 감독 1위



和 대표팀 선수 부인들

두 번씩이나 네덜란드 대표팀 사령탑을 맡았던 아드보카트 한국축구대표팀 감독이 선수는 물론 선수 부인들에게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한국시간) 네덜란드 일간지 '알헤메네 다흐블라드'가 네덜란드 역대 축구 대표팀 선수 부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드보카트 감독이 가장 친절하고 배려를 많이 해주는 감독 1위에 뽑혔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특히 경기장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면모가 '작은 장군'이라는 별명과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2년 12월 처음으로 네덜란드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아드보카트 감독은 1994년 미국월드컵에서 팀을 8강(7위)에 올려놓는 성적을 거뒀다.

대표 선수 부인들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네덜란드를 4강에 올린 거스 허딩크 감독에 대해서는 '배려는 뛰어나지만 간혹 우리들의 이름을 혼동했다'고 지적했다.

호니우디뉴 '암 환자 돕기 경매' 머리카락 기증



"호니우디뉴 머리카락은 정말 귀고 짝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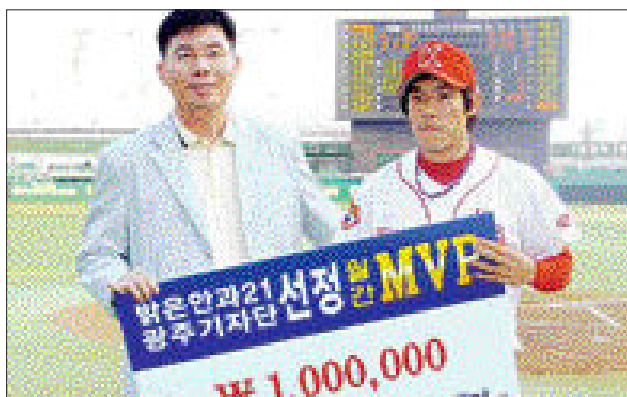
세계 최강 '삼바군단' 브라질 축구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호니우디뉴(FC 바르셀로나)가 스위스의 한 신문이 진행하는 암에방 기금 조성을 위한 경매에 자신의 머리카락 2몽치를 내놓았다.

지난달 31일(이하 한국시간) 스위스의 타블로이드판 일간 신문 '블릭'에 따르면 현재 스위스 베기스에 차려진 브라질 대표팀 베이스캠프에 머물고 있는 호니우디뉴는 머리카락을 기증하기 위해 30일 속속로 이발사들을 불렀다.

이발사 가운데 한 명은 "호니우디뉴의 자연산 곱슬머리는 매우 귀고 짝겨다. 다듬기 쉬운 머리카락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호니우디뉴의 머리카락에 대한 경매는 현지시간으로 내달 1일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우편을 통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암에방 단체에 전해진다.

KIA 타이거즈 이용규 '4월 월간 MVP'



지난달 30일 광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LG트윈스와의 경기전 '밝은안과' 21이 후원하고 광주기자단이 선정하는 4월 월간 MVP에 선정된 KIA 이용규(오른쪽)가 윤길중 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벗어나고자 몸부림...비로소 내 것 찾아”



전통굿춤으로 브로드웨이 도전하는 재미무용가 김명수 씨

소설가 황석영씨의 부인으로 곁질 많은 삶을 살아온 재미무용가 김명수(52)씨가 한국의 굿춤을 들고 브로드웨이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명수씨는 오는14일부터 18일까지 뉴욕 맨해튼 42번가에 위치한 듀크극장에서 '김명수 아리랑 : Korean Ritual Solos'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춤 공연으로는 이례적으로 5일간 공연된다. 특히 연극적 요소가 많은 그의 춤에 대한 호평이 브로드웨이 진출로 이어졌다. 이번 공연은 춤 공연으로는 이례적으로 5일간 공연된다.

美 주류사회에 우리 춤 업그레이드

김씨는 이번 공연에 대해 우리 춤이 브로드웨이에 진출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미 주류사회에 우리 춤에 대한 인식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소개했다.

김씨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번 공연을 통해 황석영씨의 부인이었다는 무게를 짐을 벗어

던지고 싶다고 밝혔다.

김씨는 황석영씨의 일방적인 귀국 이후 이혼 소송에 이르기까지 겪은 순탄치 않았던 과거사를 이야기하면서 "애를 어떻게 든지 잘 키우고 미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10년을 살았고 지난해에 비로소 내 것을 찾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댄스 시어터 워크숍 공연과 올해 공연예술아트마켓(APAP) 쇼케이스 공연을 통해 뉴욕타임즈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거대한 힘을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암시하여 관객을 매료시켰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김씨는 미국 생활을 시작한 이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라면서 "이번에 아니다 싶으면 시골에 가서 노동하면서 살고 싶다"는 말로 이번 공연에 임하는 절박함을 표현했다.

그녀의 이런 절박함에는 황석영씨에 대한 배신감과 이로 인해 잃어버린 예술가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이 묻어 있다.

김씨는 "아직도 황석영씨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아이한테만이라도 잘하면 좋겠지만 아이한테도 명성있는 작가로서 인간에 대한 예의를 못 지켰다"는 말로 황석영씨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표현했다.

춤꾼으로 새 인생 시작하리라

"누군가에게 불륜하면 안 되니까 내 자신이 열심히 살게 되면 용서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때가 안된 것 같다"는 김씨는 황석영씨와의 기억이 고통으로 변하면서 초조차 싫어졌을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춤에 의지하게 됐다면서 이번 공연을 통해 춤꾼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명수씨는 지난 1986년 황씨와 결혼한 뒤 1990년 남편과 함께 방북한 이후 독일과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했으며 지금은 뉴욕에서 링컨센터 공연예술 공공도서관 국제자문위원, 무용평론가협회 회원, 김명수 댄스프로젝트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사발은 막 쓰는 그릇...모셔 두면 안돼”

‘사발 백죽일립전’ 갖는 도예가 박종훈씨

(1,00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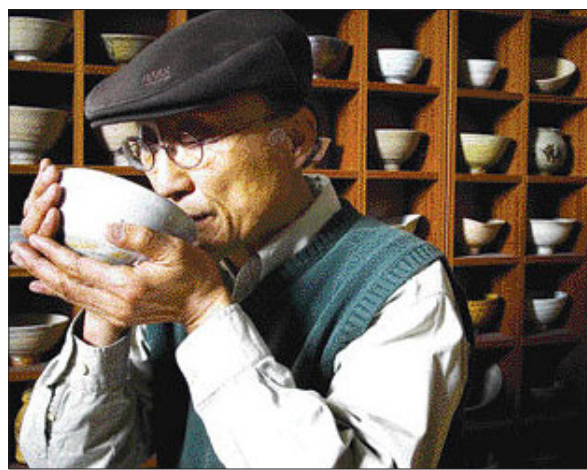
“사발은 막 쓰는 그릇입니다. 밥도 담아 먹고 국도 담아 먹고 손때를 묻혀야 해요. 찬장에 모셔두면 안돼요.” 구수한 손맛이 묻어있는 우리 사발 1천1개가 강남 한복판에 웅기종기 모여있다.

30여 년간 물레를 끼고 살면서 사발을 만들어온 작가 박종훈(57·단국대 교수)이 백자토·조합토·청자토로 빚어낸 각양각색의 사발이 오는 8일부터 대치동 포스코 미술관에 빼곡히 들어찬다.

‘사발 1천1개’는 ‘사발 백죽일립’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예부터 그릇을 세는 단위는 열 개가 ‘죽(竹)’, 1개가 ‘립(立)’이었다고 하며 박종훈의 이번 작품전도 제목이 ‘백죽일립전-내 막그릇찾기’다.

작가는 “1천은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이지만 나는 거기에 1개를 더해 새로운 시작, 작가로서 다시 시작하는 각오와 희망을 다지고 싶었다”고 말한다.

주둥이가 넓은 모양의 우리 그릇을 통칭하는 사발은 흙에 모래나 기타 잡토를 얼마나 섞는지, 입술이 닿는 부분인 전의 두께를 어느 정도로 하는지, 1천200-1천300℃로 굽기 위해 장작가마나 숯가마, 가스가마 중 어느 가마를 쓰는지 등



에 따라 무궁무진한 변주가 가능하다.

흙의 성질과 손의 힘, 물레의 움직임이 절묘하게 결합해 만들어지는 사발과 찻잔을 만드는 그는 스승을 사사하고 제자를 길러내며 도예의 기본인 물레작업에 몰두하는 장인의 고집을 간직하고 있다.

작가는 “옛 도공들은 보통 하루에 400개, 숙련된 도공들은 하루에 700개를 만들어냈다고 하지만 나는 하루에 200개 만들면 나가떨어지기 장인으로서 나의 공력은 아직도 딸었다”고 말한다.

너희와, 세상 모든이와 함께...

김수환 추기경, 주교수품 40년 맞아



김수환 추기경이 지난달 31일 주교 수품 40주년을 맞았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이날 “오늘은 김수환 추기경이 주교로 수품된 지 40년이 되는 날”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40주년과 관련한 공식행사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추기경 주위에서는 주교 수품 40주년 축하연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김 추기경이 고사해 별다른 행사 없이

이 종로구 해와동 주교관에서 조촐한 모임만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추기경은 최근 북풍으로 강남성모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으나 이내 건강을 회복, 내방객을 면담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다. 1922년 대구에서 출생한 김수환 추기경은 1951년 대구 계산동 주교좌 성당에서 사제로 수품된 이후 44세이던 1966년 5월31일 주교로 수품, 마산교구 초대 교구장에 취임했다.

1969년 4월에는 47세의 젊은 나이로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세계 최연소 추기경으로 서임, 한국 천주교 최초로 추기경 지위에 올랐다. 이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을 두 차례 역임하고, 평양교구장 서리를 지내는 등 명실상부한 ‘한국 가톨릭의 대부’로 활동해 왔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박전배(광주운병협회 회장)씨

장남 상훈(원주 MBC 기자)군 전직 수(쌍학 대표)씨 장녀 정미양=3일(토) 낮 12시30분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

▲김현남씨 장남 양경완군 김판순씨 막내 박유순양=4일(일) 오전 11시30분 광주 호성웨딩문화원 2층 해피홀.

▲서장석씨 장남 증원군 장상열(대미화랑 대표)씨 장녀 예준양=4일(일) 오후 3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외교센터 12층 리더스클럽.

▲고충석씨 장남 훈군 황영성(서양화가)씨 차녀 지은양=4일(일) 낮 12시30분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호 텔프리마 3층 그랜드볼룸.

▲정안석씨 장남 재호군 선병완씨 장녀 성희양=4일(일) 낮 12시

금호생명빌딩 3층 금호컨벤션웨딩홀 크리스탈홀.

▲박형순씨 차남 김기현군 주선자씨 3녀 시경리양=4일(일) 오후 1시 금호생명빌딩 3층 금호컨벤션웨딩홀 크리스탈홀.

알림

▲광주생명의 전화(대표 소진택) 상담=24시간 전화 상담(1588-9191) 월~금 오전10시~오후4시 일반 면접 상담(가족문제, 자녀문제, 가정폭력, 자살 등) 사전예약 062-223-919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변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요일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비둘기가족폭력상담소 무료상

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 주 목·금요일, 652-1366, nam939@dreamwiz.com

동창·동문회

▲광주·전남 영암구림초교 제 58회 전반기총회=3일(토) 오후 5시 산천문화로로 진흥구이 223-5165

▲전남대 간호대 동창회 정기총회=3일(토) 오후 4시30분 무등파크호텔 4층 다이아몬드홀.

▲광주시산초교 제 38회 동창회(회장 최중채) 모임=3일(토) 오후 7시 무등골, 011-620-5729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총동문 가족 한마당=4일(일) 오전 10시 대운동장, 011-9622-9707

▲조대부고 제 23회(회장 조철호) 체육행사=4일(일) 광주충효분교 운동장, 017-601-1303

▲광주 시대부중 제 4회(회장 전성수) 동창회=4일(일) 오후 7시 이기산당.

▲재광 목포 공립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성기) 정기총회=8일(목) 오후 6시30분 상록회관 4층, 682-7766

중친회

▲진양(진주)하씨 광주 회수회(회장 하준택) 월례회=3일(토) 낮 12시 박막트 풍암점 종친회 사무실.

▲연안차씨 종친회(회장 차호철) 광주전남 지부 정기총회=3일(토) 오전 11시 신성식당 232-0177

향우회

▲재광 영암군 향우회 제 57회(회장 박익민) 정기총회=3일(토) 오후



정 총장은 93년만에 돌아오는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의 내력도 자세히 설명했다.

정 총장은 “이번 반환은 그동안 기울여 온 문화재 환수 노력이 축적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문화재 관리 보존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왕조실록 반환은 국가적 경사”

정운찬 서울대 총장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지난달 31일 일본으로 반환돼 도쿄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47책이 국내에 반환되는 것은 국가적 경사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이날 서울대 개교 60주년 및 규장각 창립 230주년 기념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축사에서 “한국학 연구의 보고(寶庫)인 규장각에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史庫本)이 오게 된 것은 서울대의 기쁨이며 국가적인 경사”라고 말했다.

변정수 ‘여성환경연대 공정무역’ 홍보대사



패션모델이자 탤런트로 활동중인 변정수가 여성환경연대 공정무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변정수는 1일 서울 안국동 윤보선 전 대통령 고택에서 열리는 여성환경연대 창립 7주년 행사 중 패션쇼 무대에 선다. 패션쇼는 이 단체가 들여올 인도의 오가니 코트, 네팔에서 전통적인 제작방법으로 만들어진 환경친화적 의류 등이 소개된다.

Advertisement for a graduation ceremony at Wudeung High School, including details about the date, loc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icket purchases and inquiries.